



## 스위스 탐구 생활: 루체른(Luzern) 호수 지역의 알프스 산.

### 로컬들의 산 사용법

누구나 여행하는 방식 말고  
 좀 더 특별한 체험 가능한 여행법  
 필라투스에서는 사랑 속삭이고  
 리기에서는 바비큐하고  
 티틀리스에서는 노를 젓고  
 슈토오스에서는 능선 걷고  
 클레벤알프에서는 인생샷 남겨 보기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 1 순위가 바로 여행이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내어, 곧 떠날 날을 준비하는 의미로 스위스정부관광청은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스위스 여행지의 숨은 묘미를 하나씩 공개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여행자들이 더 다채롭고 깊이 있게 곧 다시 스위스를 여행하기를 기대하며, 그 세 번째 지역으로 루체른 호수 지역에 있는 알프스 산을 소개한다. 특히 로컬들이 각 산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특별한 체험법도 함께 소개한다.

### 1. 필라투스(Pilatus)를 걸어 올라, 사랑을 속삭이세요.

중앙 스위스를 상징하는 바위산, 필라투스로 향하는 방법은 색다르다. “골든 라운드 트립(Golden Round Trip)”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바로, 유람선, 톱니바퀴 열차, 케이블카, 곤돌라를 모두 이용해 여행하는 것이다. 조난 당한 사람들을 구해주었던 용의 전설을 품고 있는 필라투스는 루체른(Luzern) 시내에서 무척 가까워 반일 여정도 가능한 까닭에 관광객들에게는 물론, 루체른 시민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산이다. 게다가 알프나흐슈타트(Alpnachstad)부터 운행되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바퀴 열차는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깎아지른 절벽과 숲, 들판을 지나 필라투스 정상까지 스릴 넘치는 풍경을 선사한다. 최고 경사도가 48 도나 된다.

루체른 시내 한복판, 카펠교 너머로 우뚝 솟아있어 눈에 띄는 바위산, 필라투스는 로컬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필라투스 산에서 흐르는 물로 로컬 맥주를 만들고, 필라투스 이름을 딴 라디오 방송국도 있을 정도다. 관광객들이 여행하는 방식으로 필라투스를 오르면, 로컬들을 만날 기회가 좀처럼 없다. 로컬들을 만나는 여행법은 따로 있다. 바로 일부 구간 하이킹이다.

그 중, 루체른 시내에서 버스로 연결되는 필라투스 곤돌라가 출발하는 작은 마을, 크리엔스(Kriens)와 정상까지 이어지는 대형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중간역, 프라크뮌테그(Fräkmüntegg) 사이가 하이킹에 적당하다. 크리엔스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주민들이 대형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오르막이 심하지 않은 초원 언덕을 여유롭게 걸을 수 있다. 다음 케이블카 역인 크리엔저에그(Krienseregg)까지 올라가 볼 수 있다.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는 쉬운 코스다.

제대로 된 알프스 숲속 하이킹을 원한다면 곤돌라 역인 크리엔저에그부터 프라크뮌테그 역까지 걸어볼 수 있다. 빼곡하고 키 큰 전나무 숲을 거닐 수 있는데, 오래된 낙엽 냄새와 숲 향이 진하게 밴 맑은 공기가 감탄스럽다. 1 시간 30 분에서 2 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로, 어렵지 않은 등반 코스라 생각하면 된다.



필라투스 정상에서는 동굴 사이를 거닐며 루체른 호수와 마을의 풍경이 펼쳐지는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고, 알프스 까마귀가 날아다니는 평화로운 알프스의 공기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정상에 위치한 필라투스 쿨름(Pilatus-Kulm) 호텔에 묵는다면 관광객들이 모두 내려간 뒤, 적막 속에서 낭만적인 석양과 일출도 감상할 수 있다. 곳곳에서 소곤소곤 사랑을 속삭이는 로컬들이 눈에 띈다. 밤이 되면 하늘에서는 별빛이 쏟아지고, 산 아래로는 루체른 시내와 호숫가의 불빛이 아름다운 강을 이룬다.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만 모여 나누는 디너 코스 메뉴와 풍성한 조식도 매력적이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케이블카 및 퓨니쿨러 요금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www.pilatus.ch

## 2. 리기(Rigi)에서는 알프스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장작불을 지피고, 소시지를 구우세요.

초원이 가득 펼쳐진 낭만적인 리기산으로 향하는 리기 철도는 비츠나우(Vitznau) 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비츠나우 리기반(Vitznau-Rigi Bahn)과 아르트 골다우(Arth Goldau)에서 출발하는 아르트 리기반(Arth-Rigi-Bahn), 그리고 벅기스(Weggis)에서 리기 칼트바드(Rigi Kaltbad)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로 운행된다. 연인과 두 손을 꼭 잡고 초원을 하이킹하며 야생화를 감상하고, 산 아래로 펼쳐진 루체른 호수와 목가적인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는 리기 산에서 특별히 추천하는 체험은 다름 아닌 바비큐다. 자연 보호에 철저한 스위스 산에서 바비큐라니, 의아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현지인들이 가족 단위로, 연인 단위로 즐기는 것이 근교 산에서의 바비큐다. 슈퍼마켓에서 소시지와 미리 양념 되어 있는 스테이크, 맥주와 와인 등을 구입하여 산에 마련된 바비큐장을 찾으면 된다. 일 년 내내 무료로 개방되는 바비큐장이 리기산 곳곳에 마련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정상 근처, 슈타펠회헤(Staffelhöhe)에서 15 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그라트베그(Gratweg) 바비큐장은 루체른 호수와 알프스 봉우리가 펼쳐지는 기막힌 풍경이 펼쳐진다. 대부분의 바비큐장에는 장작이 마련되어 있으나, 숯을 한 봉지 준비해 가는 것도 좋다.

바비큐 전후로는 하이킹을 즐기기 좋은데, 추천 코스는 리기-칼트바드(Rigi-Kaltbad)에서 리기-샤이데그(Rigi-Scheidegg) 코스이다. 3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정겨운 야생화와 초록 들판을 마음껏 즐기며 중간중간에 위치한 산장 식당에서 쉬어가도 좋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리기산 전체 교통편이 무료다.  
www.rigi.ch

## 3. 티틀리스에서는 산속에서 노를 저어 보세요.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로 유명한 티틀리스는 중앙 스위스 알프스와 빙하의 파노라마를 선사한다. 곤돌라가 정상에 도착하는 마지막 600m 구간 동안 360도 회전을 1회 하며 사방의 파노라마를 골고루 보여주는 친절함도 갖췄다. 알프스의 하늘을 동실 떠오르며 5분 동안 천천히 회전을 하는 티틀리스의 회전 곤돌라에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우리 알프스(Uri Alps), 오브발트(Obwald)의 멜히탈(Melchtal) 계곡, 루체른 호수의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티틀리스 정상에서는 빙하 체어리프트를 타고 빙하의 크레바스를 관찰할 수 있으며, 350m 나 되는 빙하 동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눈썰매도 빠질 수 없는 묘미이며, 빙하 위로 놓인 아찔한 구름다리, 클리프 워크(Cliff Walk)를 건너며 아찔한 빙하 체험을 즐길 수도 있다.



정상 빙하 체험을 마쳤다면, 중간역인 트뤼프제(Trübsee)로 향해야 한다. 낭만적인 산정호수, 트뤼프제에서는 노 젓는 배를 한 척 빌릴 수 있다. 4인이 함께 탈 수 있는 배가 총 6척 마련되어 있는데, 구멍조끼도 함께 빌릴 수 있다. 알프스의 호젓한 산정 호수에서 느긋하게 노를 저으며, 고요한 물 위를 동실동실 떠다니다 보면, 그리고 주변으로 펼쳐진 알프스 봉우리를 감상하다 보면 천국이 따로 없다는 기분에 젖게 된다. 게다가 배 대여료가 무료다. 대신, 배 관리비를 위해 자발적인 CHF 10 기부를 받고 있다. 선착장에 있는 박스에 넣으면 된다. 6월에서 10월까지만 운영하는 서비스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케이블카 요금의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www.titlis.ch](http://www.titlis.ch)

#### 4. 슈토오스(Stoos)에서는 아찔한 능선을 따라 걸어보세요.

루체른 근교의 슈비츠(Schwyz)에는 자동차 출입이 금지된 초원의 산악 마을, 슈토오스(Stoos)가 있다. 이 마을로 향하는 케이블 철도, 퓨니쿨러가 지난 2017년 12월 15일 오픈했다. 이 퓨니쿨러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최고 110도의 경사도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짜릿한 스릴을 안겨 준다. 네 개의 배럴 모양을 연결한 것으로, 자유롭게 회전하며 가파르기가 조절되어 승객들이 산을 오르는 동안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중앙 스위스에서 심장부에 위치한 슈토스는 해발고도 약 1,300m에 자리해 있어, 루체른 호수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여름이면 전망대에서 루체른 호수의 파노라마를 감상하기 좋고, 피크닉이나 캠프파이어를 즐길만한 곳으로 가득하다. 산장 레스토랑에서 미식 체험을 즐겨도 좋다. 마을을 휘휘 돌아 산책을 즐기며 초원 풍경을 가득 담아 보아도 좋는데, 사실 현지인들에게 슈토오스를 유명하게 만드는 것은 이곳의 능선 코스다. 스위스에서 독특한 것을 정평이 난, 프론알프슈톡(Fronalpstock)-클링엔슈톡(Klingenstock) 사이의 릿지(ridge) 하이킹 트레일은 2-3시간 동안 중앙 스위스의 산 봉우리와 호수의 파노라마가 이어지는 최고의 절경을 선사한다. 스위스에서 이 능선 코스는 아름답고 클래식한 파노라마 코스로 소문이 자자하다. 열 개가 넘는 호수의 풍경과 중앙 스위스의 셀 수 없는 알프스 봉우리가 눈 앞에 펼쳐진다. 풍경 곳곳에 피어난 소박한 야생화가 봄을 알린다. 리멘슈탈덴(Riemenstalden) 계곡과 우리(Uri) 호수의 파노라마도 이어진다. 슈토오스에서 내려다보이는 중앙 스위스의 알프스 파노라마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슈토오스산 전체 교통편이 무료다.

[www.stoos.ch](http://www.stoos.ch)

#### 5. 클레벤알프(Klewenalp)에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인생샷을 남겨 보세요.

클레벤알프(Klewenalp)는 사실, 우리나라 여행자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산이다. 루체른 호수 남단에 있는 벡켄리드(Beckenried)에서 케이블카를 타거나, 에멘텐(Emmetten)에서 6인승 곤돌라를 타고 클레벤알프(1,600m)나 슈톡취테(1,280m)에 오를 수 있는 산이다. 로컬들은 겨울이면 클레벤알프로 눈썰매를 타러, 여름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이킹을 하러 찾는 산이다. 야생화와 알프스 허브가 잔뜩 피어난 클레벤알프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에게 소소한 볼거리로 가득하다.

로컬들 사이에 클레벤알프가 유명한 이유를 하나 더 꼽자면, 웨딩 포토 촬영이다. 호수와 알프스 봉우리, 그리고 하얀 드레스 주변으로 펼쳐진 야생화 꽃밭 덕분에 인생샷이 보장되는 명소로 유명하다.

Switzerland Tourism.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산답계, 루체른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터 중 하나도 여기에 있다. 벡켄리드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클레벤알프에 오르면 케이블카 역에서부터 나무 향이 그윽하다. 나무를 테마로 한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기어오르고, 뛰어내리고, 까르륵 웃어대느라 여념이 없다. 특히 톱밥이 깔린 스위스 전통 씨름장이 있어 인기다. 여기에서 골디 패밀리 사파리(Goldi Family Safari)라고 불리는 가족 단위 하이킹 코스가 시작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 시, 클레벤알프 케이블카가 무료다.

[www.klewenalp.ch](http://www.klewenalp.ch)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http://www.MySwitzerland.co.kr)